

새정치 공천 료 확정

광역단체장·광역의원 후보들 합의로 선택

- ① 공론조사 50% + 여론 50%
- ② 100% 공론조사
- ③ 권리당원 50% + 여론 50%
- ④ 100% 국민여론조사

합의 불발 땀 최고위서 결정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 료를 확정했다. <관련기사 3·4면> 이날 확정된 공천 료는 ▲공론조사 50% + 여론조사 50% ▲100% 공론조사 ▲권리당원 투표 50% + 여론조사 50% ▲100% 국민여론조사 등 4가지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 경선에 적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용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4가지 방안을 전국 권역별 경선에서 상황에 맞게 '맞춤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총장은 이와 관련, 후보 간의 경선 방식 합의가 우선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경선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론조사 선거인단(배심원단)은 상향식(유권자 자발적 참여)과 하향식(중앙당 콜센터 운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상향식 선거인단은 지역 유권자 가운데 0.2%로 구성기로 했고, 하향식은 3000명으로 선거인단을 제한하기로 했다. 광역의원 후보의 경우에는 4가지 경선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되, 동원 논란을 차단하

기 위해 공론조사 선거인단 구성시 하향식 모집만 허용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유권자가 적은 지역은 200명, 통상적으로는 300~500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공론조사란 미리 구성된 선거인단(배심원단)이 전문 패널과 후보자들의 질의·응답 과정과 후보들의 상호 토론을 보고 현장 투표에 나서는 것이다. 이 방식은 당원 조직이 취약한 안철수 공동대표측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국민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대상자를 무작위로 정한 뒤 전화 면접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투표는 지난달 31일까지 입당하고 당비 납부를 약정한 모든 당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지역 경선에서는 당원이 없는 구 새정치연합 후보들과 구 민주당 후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당헌당규에 적시된 광역의원 후보 공천에서의 여성 30% 반영은 검증된 여성 자원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는 현역 국회의원의 예비등록은 중앙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의원직 사퇴는 이뤄지지 어려울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4가지 경선 방식의 시행세칙을 만들어 주중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오는 10일 전후로 본격적인 경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청 상무시대 10년 ... '상전벽해'



광주시청이 '계림동 시대'를 접고 '상무지구 시대'를 연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3일 저 멀리 광주시청을 배경으로 한 모습에서 광주의 중심지로 급성장한 상무지구의 위용이 느껴진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군부대 '황무지'에서 행정·경제·교통의 중심지로 민선 5기 수출 급증... 소비도시→수출도시 탈바꿈

광주시청(사)이 계림동 시대를 접고 '상무지구 시대'를 연 지 올해로 꼭 10년째다.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상무지구는 시청 이전 효과로 10년 만에 광주의 행정·경제·교통 중심지로 거듭났다. 같은 기간 광주시도 '소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생산·수출도시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민선 5기 들어서는 국내 제2 도시인 부산의 수출액을 앞지른 뒤 단 한 번도 뒤지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69년부터 35년간 동구 계림동에 있었던 광주시청은 2004년 3월 30일 서구 상무지구로 이전, 올해로 이전 10년을 맞이했다. 상무지구는 광주시청이 옮겨오기 전 기본수관역캐널 아

파트도 미분양될 정도로 비인기 지역이었지만, 시청 이전 10년 만에 광주의 중심이 됐다는 게 광주시의 분석이다. 도심개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무지구의 건축허가 건수는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3233건으로, 2633건(1994~2003년)보다 600건이나 증가했다. 중심상권도 상무지구로 대거 이동해 3600여곳이던 숙박 및 음식점은 현재 3900여곳으로 300여곳이나 늘었다. 인구도 상무1동을 기준으로 2만2221명에서 2만4946명으로 2725명이 증가했다. SOC도 크게 개선됐다. 상무지구 주변 도로로는 2003년 12개 노선 24.6km에 불과했으나, 빛고을대로, 무진대로, 제2순환도로 4구간 등이 신설돼 15개 노선 47.6km로 늘었

	2003년	2014년	증가
건축허가	2,633건	3,233건	600건
숙박·음식점	3600개	3900개	300개
공무원 수	2681명	3178명	497명
주변 주요도로	12개노선 24.6km	15개노선 47.6km	23km
버스노선	7개	137개	67개
운행대수	98대	169대	71대

이상 늘었다. 특히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수출이 늘다 보니 취업자수 증가율(3.4%)도 전국 2위다. 시청조직도 커져 2003년 10개 실·국·본부 40개과에서 현재 11개 실·국·본부 52개과로 늘어났다. 시대 흐름에 따라 민방위비 상대책과 5·18선양과 등 5개과는 폐지됐고, 투자유치지원관, 인권담당관실 등 17개과는 신설됐다. 정원은 2681명에서 3178명으로 497명이 늘었고, 여성은 410명(정원 대비 15.3%)에서 727명(22.9%)으로 증가했다. 5급 이상 여성간부도 6명에서 42명으로 늘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상무시대" 1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문화 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희 **법무법인 민**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광주분사무소를 개소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법인에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주 사무소 근무변호사

- **용 응 규** 변호사 · 우신고, 서울대 법대 졸업, 일본 중앙대 연수, 전남대 법리안 3기 제3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20기) · 서울지검, 부산지검, 순천지청, 대검총수부 검사 · 전주지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 **윤 일 권** 변호사 · 광주동신고, 연세대 법학과 졸업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변시2회)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 용 응 규

■ 광주분사무소입무개소 : 2014. 4. 1) 광주 서구 동경로 92(지산동 718-7)주연빌딩 5층
■ 대표전화 : 062(233-7900) ■ 팩 스 : 062(233-7901)

청산도 구들장 논 국내 첫 세계농업유산 등재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관련기사 5·18면> 전남도는 3일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의 돌담밭이 나란히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서를 완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도아시아 문화도시 광주

동아시아 문화의 빛, 광주

함께하는 도시
광주
요코하마
취안저우

- **광주 개최행사**
한중일청소년문화교류 [8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시 [9-10월]
동아시아문화도시개발 국제컨퍼런스 [10월]
한중일 전통의상 전시회 [10월]
추억의 7080충장축제 [10월]
광주김치축제 특별전시 [10월]외
- **해외 교류행사**
취안저우시 민남문화축제 [6월]
청소년 무형문화유산 탐방 [8월]
한중일 예술제 [9월] 외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주관 | (재)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문의 | (062)611-2423~2427